로잔의 개혁신학자 Guilielmus Bucanus(†1603)의 신학 인식원리[1)]

조성재
(하늘뜻 섬김 교회)

[초록]

본고는 로잔의 개혁신학자 윌리엄 부카누스(†1603)의 신학강요에 나타난 신학의 인식원리인 성경론을 다룬다. 그에게 있어서 계시와 성경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전통을 따라 삼위일체적 구조에 연관된다.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구성하는 세가지 구조 – 본질에 따른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상호관계에 따른 위격들 그리고 피조세계에 관련한 삼위일체의 역사 – 에서 첫번째 구조와 두번째 구조는 신론에 해당하고, 세번째 구조가 하나님의 경륜 아래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포괄한다. 삼위일체의 존재와 역사경륜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삼위일체의 외부를 향한 모든 역사는 분리되지 않는다. 어거스틴 전통의 이러한 삼위일체의 통일적 경륜이 부카누스 신학의 방법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신학원리와 신학체계 전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신중심적 총체다.

논문투고일 2015.12.2 / 수정투고일 2015.12.31. / 게재확정일 2016.1.11.

1) 본고는 개혁주의학술원 & 칼빈학회 주최 제 1 차 신진학자 포럼(2015.7.18. 부산)에서 발표한 글임을 밝힌다.

부카누스의 신학 인식원리에 있어서 성경은 참된 저자이신 하나님과 나누어 생각할 수 없다. 성경계시의 형성에서 해석과 적용에 이르기까지 신중심적(theocentric)이다. 성경의 영감에 있어서 "dictata(받아쓰기)" 개념을 도입하고, 성경의 유효적 저자로서 성령과 인간 기록자들을 구분하며, 성경진리의 참되고 최종적인 증거자로서 성령을 강조한다. 성경자체의 가신성과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이 하나요 같은 저자이신 삼위 하나님의 통일적 경륜에 근거한다.

17세기 말 개혁신학의 침체와 더불어 18세기 과학적 실증학문의 사상적 거대조류는 신학함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성경에서 성경의 참된 저자로서의 하나님을 분리하고, 성경의 신적 기원에 대해 물음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부카누스의 신학원리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신학 자체의 본질과 목적에 맞지 않는다. 우리 시대 개혁신학의 사명은 교회와 학문으로써 신학에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회복하는 일이다. 부카누스의 신학 원리는 이러한 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된 저자,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전통, 믿음의 유비, 기계적 영감, 유기적 영감

Ⅰ.들어가면서

종교개혁은 전혀 새로운 어떤 종교를 산출한 사건은 아니다. 그 이전시대까지 진리 지식이 어둡고 왜곡되어 있던 상황 속에서 보편교회의 신앙을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다. 보편교회로서의 개혁교회는 성경을 통해 구

원의 참된 신지식(notitia Dei)을 얻고자 하였다. 이 지식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교회에 주어지는 선물이다. 종교개혁에서 회복하고자 했던 신지식은 로마가톨릭교회 전통에서 권위와 진리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찬동(assensus)'을 강조하였던 입장과 대별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의 자율성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 외부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자기계시에 근거한다. 그만큼 성경의 자체가신성이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성경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는 적정과 절도의 원리가 칼빈이 살았던 시대에만 유효한 외침은 아닐 것이다. 16, 17세기 개혁신학자들이 확보하고 보존하려 했던 신앙과 신학유산을 살피는 것은 오늘날에도 유의미한 일이다. 21세기 한국의 개혁교회가 성경 진리를 따라 종교개혁의 신학적 통찰에 관심을 기울이고, 보편교회의 바른 표지를 이어가기 위해 애쓰는 것은 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성경에 대한 개혁자들의 견해를 살피는 일은 개혁교회의 신앙과 신학의 순수성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들에게 성경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살펴 오늘의 개혁신학을 그것에 투사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16세기 개혁신학자 윌리암 부카누스의 신학을 소개하므로 그런 유익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의 신학 전반을 소개하기보다 그의 신학원리, 그 중에서도 그의 신학 인식원리, 곧 성경론을 집중하여 소개할 것이다. 다만 생소한 인물인 만큼 그의 생애와 저작을 살피고, 그의 조직신학 체계를 개괄한 후 본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다.

Ⅱ. 부카누스의 생애 및 저작

1. 생애

지금은 비록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지만 로잔의 신학자 부카누스는 당대 주요한 개혁신학자 중 하나였다.[2] 그의 생애에 대해 자세한 연구 자

료는 거의 전무하다. 대부분의 정보는 사전적 수준이며[3] 몇몇 교회사 혹은 교의학 저술들에 간략하게 소개된 정도다.[4] 그 중 비교적 자세한 정보가 로잔의 교회사가였던 펠르미어(Vuilleumier, 1841-1925)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부카누스의 출생년도는 알 수 없으나 프랑스 노르망디의 루앙출신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는 부카누스의 경력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대략적인 개괄만 하겠다. 부카누스는 1564년 로잔 중학교의 교감으로 재직하다가, 1568년 위페르동에서 오늘날 강도사에 준하는 직책을 맡게 된다.[5] 1571년 전임 사역자였던 테오돌 말링제르(Théodore Malingère)가 노환으로 은퇴하면서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20년을 목회한다. 펠르미어는 그의 목회사역에 있어서 설교가 탁월했으며 피난민과 성도들에게 온정적이되 권위가 있었고, 또 집행관과 시의회 사이의 마찰을 중재하는데 노력했다고 서술하고 있다.[6] 부카누스는 목회사역을 통해 위페르동에서의 입지가 견고해졌고 점차 권위를 갖게 되었다. 1588년에는 베른 총회에 총대로 파송되었는데 당시 문제가 되었던 칭의와 성화에 대한 끌로드 오베리(Claude Aubery, 로잔 철학교수)의 잘못된 견해를 거절하고 정통교리를 보존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였다.[7] 이 일을 계기로 그의 신학적 입장이 더 날카롭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큰 명성을 얻게 된다. 결국 1591년에는 로잔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2) Vuilleumier, *Histoire de l'Église Réformée du Pays de Vaud sous le régime bernoisi*, II (Lausanne: Editions La Concorde, 1927) 169.
3)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Handwörterbuch für Theologie und Religionswissenschaft* (RGG. Aufl. 4); Frère, *Manuel du bibliographe normand*. Tome 1, 202; Haag & Haag, *La France protestante*, 9 tomes; *Oursel: Nouvelle biographie normande*, 4 tomes.
4) Gaß, *Gesch. der Prot. Dogmatik* I (1854) 394 ff; Ritschl, *Die refor. Theol. des 16. & 17. Jahrhunderts in ihrer Entstehung & Entwicklun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26) 290-291; Heppe, *Reformierte Dogmatik*, in Historische Einleitung des Herausgebers, xxxii-xxxiv (Neukirchen: Neukircher Verlag, 1958)
5) *Historisches Lexicon der Schweiz* (HLS) 참조.
6) Vuilleumier, *Histoire*, II, 168.
7) Vuilleumier, *Histoire*, II, 168; HLS 참조.

임용되었다가 1595년부터 1597년까지 신학교장으로 임명되기에 이른다.[8)]

개혁교회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라 주요한 개혁신학자로서 그의 이름은 프랑스에까지 알려진다. 그 단초가 되었던 것은 1594년 있었던 삐엘 샤롱(Pierre Charron, 1541-1603)과의 논쟁이다. 로마 가톨릭 신학자였던 샤롱은 자신의 책『세가지 진리에 관한 소고』(*Traité des trois vérités*)에서 다음 세 가지 내용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성경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둘째 참된 종교는 기독교이다. 셋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 중 마지막 주제와 관련해 책의 4분의 3을 할애할 만큼 샤롱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변호하려 하였다.[9)] 부카누스는 세 번째 부분에 집중하여 반박하면서 교회에 관한 성경적 교리를 확증하고자 노력하였다. 당시 위그노의 교황으로 불리던 듀쁠레시 모네(Dupessis Mornay, 1549-1623)도 샤롱의 견해에 대해 반박의 책『교회에 관한 소고』(*le Traité de l'Église*)를 발간하였는데, 부카누스의 그와 같은 노력이 모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했다. 이를 계기로 소무르에 개신교 신학교 설립이 추진될 때, 앙주(Anjou) 지방에 왕의 관료로 있던 모네는 교수 청빙에 있어서 부카누스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를 추천하였다. 그렇게 해서 부카누스는 레이든 대학의 신학교수였던 유니우스(Junius)와 함께 소무르 학교에 함께 청빙을 받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소무르로 떠나기 전 유니우스(1602,10.13)는 페스트병으로, 부카누스(1603, 8.15)는 뇌졸증으로 소천하고 말았다.[10)]

8) HLS 참조; cf. in Encyclopedia Reformata에는 'vice-chancellor'로 언급된다.
9) http://www.nndb.com/people/843/000104531 참조; Cf. 샤롱과 관련해 RGG (121-22)도 참조하라.
10) Vuilleumier, *Histoire* , II, 169; cf. In HLS.; Van Itterzon, *Franciscus Gomarus* (Gravenhage: Nijhoff, 1929), 209.

2. 저작

부카누스의 조직신학 저술『신학 강요』는 1602년 초판 이래 여러 해를 거쳐 거듭 출판되었다. 서문은 그가 소천하기 1년 전에 쓰였는데, 이 서문에서 책의 저술동기, 출판과정 그리고 저술 방법론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칼빈의『기독교 강요』와 마찬가지로 부카누스는 자신의 신학강요를 신학후보생이 성경진리를 잘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 출판한 것으로 피력한다. 즉 저들이 영감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건전한 양식을 명료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11)] 이는 그의 신학강요가 교육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으로 저술되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신학강요는 처음부터 출판을 의도해 만든 책은 아니었다. 부카누스는 신학생들이 목회사역을 위한 시험에 잘 준비되도록 자신의 신학강좌를 받아쓰게 했다. 그렇게 모아진 강의록은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료 목회자들에게도 회람되었고, 당시 원로였던 베자(Beza, 1519-1605)에게도 전해지게 되었다. 베자는 이 강의록에 크게 만족하여 출판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미 로잔 신학교에서 교수 경험이 있던 베자는 강의록 형태로 회람되던 부카누스 문집이 정식 출판되는 것이 유익하다 판단했던 것이다.[12)] 출판하는 과정에서

11) Bucanus, *Institutiones Theologicae seu Locorum Communium Christianae Religionis, ex Verbi Dei* (Genevae: Ex Typographia Jacobi Stoer, 1625) 서문: "…ut ex meis Scholis, Candidati Theologiae, limpidissimis divinitus inspiratae Scripturae fontibus imbuti, Ecclesis Iesus Chisti, quarum Deus singulari beneficio vos Nutritos & Tutores constituit, sanum & salutare Verbi ipsius pabulum dextre & orthodoxe deprompturi, prodirent."; 비교, Ioannes Calvinus Lectori: "Porro hoc mihi in isto labore propositum fuit, sacrae theologiae cadidatos ad divini verbi lectionem ita praeparare et instruere, ut et facilem ad eam aditum habere, et inoffenso in ea gradu pergere queant." in: J. Calvinus, *Institutionis Christianae Religionis* (1559), *CO* 2.
12) 그의 신학강요 서문을 참조하라. cf. Vuilleumier, *Histoire* , II, 172. 여기서 우리는 부카누스의 신학이 제네바의 칼빈, 베자의 신학과 연관이 있음을 상정할 수 있다. cf. C. Strohm, "Methodology In Discussion Of "Calvin and Calvinism", in H. Selderhuis ed., *Calvinus Praeceptor Ecclesiae* (Genève: Droz, 2004), 75.

부카누스의 절친한 친구이면서 베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몬 굴라티우스(Goulartius, 1543-1628)[13]가 편집과 수정작업을 맡았다. 1602년 8월, 부카누스가 사망하기 1년 전에 신학강요의 초판이 출판되었는데, 1612년까지 매해 재출판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4] 제네바에서 뿐만 아니라 베른과 독일 브레멘에서도 출판되던 신학강요는 1604년 네덜란드어와 1606년 영어로 각각 번역 출판되기도 하는데, 이 번역판 역시 여러 해에 걸쳐 재출판되었다.

조직신학 책의 성격을 띤 신학강요 외에 몇몇 실천신학적인 소고들이 전해 내려온다. 그 중 *Ecclesiastes: Seu, de formandis sacris Concionibus : In duos Tractatus triburus: quorum priore de Methodo; posteriore de Ornatu Concionum agitur* (Bernae : Joannes LePreux, 1602, 1604/ Genevae, 1608)가 중요한데, 이 책은 신학강요 보다 먼저 출판되었다. 책의 분량은 많지 않지만 오래된 설교학 저서 중 하나다. 히페리우스(Hyperius)의 뒤를 잇는 설교학 교본으로도 손꼽힌다. 펠르미어에 따르면 이 책은 프랑스 개혁신학에 실천신학 원리를 소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15]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실천신학 분야의 소고들을 찾을 수 있다: *Oratio pro Carnis Resurrectione* (...), *Bernae Helvetiorum* (1604). *XXIIII homelies, ou sermons de M. Guillaume Debuc* (...), *a Geneve* (1604), *Guilielmi Bucani* (...), *In dominicam orationem homiliarum sylvae, Genevae,* 1606. *Guilielmi Bucani, Homilia De Abrahami sacrificio, Bernae* (1602).

13) 굴라티우스는 1618년 10월 7일 도르트레히트 총회에 제네바 입장을 서면 제출할 때 서명한 인물 중 하나다. 그외 서명한 사람은 베네틱투스 투레티누스(프란시스 투레틴의 아버지)와 다이엘 샤브레우스이다. *Acta Synodi Nationalis, Dordrechti* (1620) 14.; 스트롬에 따르면 굴라티우스는 칼빈과 베자의 계승자요 제네바 교회 목회자들 사이의 중재자였다. Strohm, "Methodology ...", 88.
14) Vuilleumier, *Histoire*, II, 172.
15) Brienen, *"Voetius en Hoornbeek over de homiletiek"* (1617-1666) in : van Oort J. red., *De Onbekende Voetius*, Voordrachten wetenschappelijk symposium Utrecht 3 maart 1989 (Kampen: Kok, 1989), 55.

사무엘 마레시우스(Samul Maresius, 1599-1673)는 1645년 흐로닝엔에서 출판한 자신의 책 *Enchiridion candidatorum S. Ministerii; quo possint tam ad conciones sacras quam ad ecclesiasticam gubernationem formari* 에 부카누스의 신학강요와 설교학 책 요약을 포함시켰다. 나우타에 따르면 마레시우스의 '독자에의 권고(Admonitio ad Lectorem)'라는 출판물에서도 이 책이 포함되어있는데, Admonito는 원래 헨리쿠스 알팅(Henricus Alting, 1583-1644)이 기획하고 작업하던 출판물이었다가 알팅 사후 마레시우스가 완성한 것이라 한다.[16] 주지의 사실은 마레시우스가 헤르토헌보쉬('s-Hertogenbosch)에서 교수할 때 발행한 Ratio Studiorum에 부카누스를 칼빈, 베자, 우르시누스(Ursinus), 유니우스, 볼레비우스(Wollebius)와 함께 주요한 신학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고, 흐로닝엔(Groningen) 아카데미에서는 추천도서로써 부카누스, 우르시누스, 칼빈, 레이든 신학통론 그리고 피터 마르티르(Peter Martyr)를 들고 있다.[17] 당시 부카누스가 존중받는 개혁신학자 중 하나였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그런 만큼 오늘날에도 그의 자리와 명성은 정당하게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Ⅲ. 신학의 총체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

부카누스의 조직신학 체계에서 신학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신학'에 대한 관점이 어떠함에 따라 그것의 원리, 목적, 대상, 방법, 체계 등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18] 부카누스에 있어서 신학은 성경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에 관한 신적 교리'라 말할 수

16) Nauta, *Samuel Maresius* (Amsterdam: H.J. Paris, 1935), 13.
17) Nauta, *Samuel Maresius* 163, 201, 204.
18) 이런한 이해는 20세기 초까지 개혁신학에서 계속 발견되어 왔다. Bavinck, *Gereformeerde Theologie* (Kampen: Kok, 1998), 11-12 이하 GD로 표기.

있다. 성경은 신학인식의 원리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부카누스 신학의 주요 관심이다. 그는 자신의 신학강요를 다음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무엇이 거룩한 신학의 가장 우선되는 주제인가?" "하나님에 관한 것(de Deo)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을 근거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필연성을 피력한다.[19] 여기에 사용된 라틴어 "신에 관한 인지(cognitio Dei)"는 부카누스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중 하나다. 주목할 것은 부카누스가 locus I 의 제목은 신론(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삼위일체)에 관한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의 근원을 묻는 물음(계시론)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카누스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의 본질적 차원의 지식과 피조물 차원의 지식으로 나누어 설명한다는 것도 흥미롭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의 속성들의 다양성은 그의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에 연원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본질의 모든 속성들(omnia attributa essentiae Dei)은 실제적으로 하나지만, 인간의 연약한 인식능력으로 인해, 즉 인지, 이성, 피조물들의 관점에서 실효가 그것을 다양하게 보이게 한다. 즉 한편으로 하나님의 속성들은 본질적으로 하나지만, 다른 한편 우리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말이다.[20] 부카누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다양성과 단순성(혹은 통일성)이라는 두 차원을 염두하고 있다. 이것은 어거스틴(Augustinus)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단순성과 위격들의 고유성 그리고 삼위일체와 삼위일체의 피조세계와 관계에 따른 경륜 차원을 구분하여 논의하는 구조의 반영이다.

19)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 i.
20)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 xvii: "Cum essentia Dei sit simplicissima, Potentia, Bonitas, Iustitia, Sapientia, Misericordia, in Deo, qua ratione different? Non essentia: illa enim omnia attributa Essentiae sunt unum quoddam reipsa, sed ψι αῖς ἐπινοίαις, cognitione, nostri ratione & effectis respectu Creaturarum."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무엇을 위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는가? 부카누스는 인간 창조의 목적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근거해 설명한다. 하나님은 인생이 그를 알기를 원하셨다. 그 결과로써 인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은혜와 복을 누린다.[21] 부카누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이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는가?

1. 비록 하나님은 그 자체로 또한 그의 본성으로도 볼 수 없는 분이지만, 자신의 본질과 본성을 사람(거울에서와 같이)안에 어느 정도 볼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사람에게 나타내셨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형상인데, 그는 그 형상을 따라 알려지신 것이다. 곧 그것이 형상의 본래적 목적과 용도다.

2. 그렇게 사람으로 알려지시므로 하나님이 그로부터 사랑과 경외 또 영광을 받시기 위함이다."[22]

실천적 측면에서 주목할 것은 이 지식이 구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부카누스에게 있어서 구원은 지식,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관련한다. 그의 신학강요(1605)에 첨부된 구조도(Dispositio)를 보면 죄로부터 구원은 다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

21) Bucanus, *Institutiones*, Locus VIII, xxxviii: "In quem finem homo conditus est? Ad Dei notitiam: deinde cultum, tam spiritualem, & internum, quam corporalem & externum in terris; gloriam denique. Unde sequatur hominis totius felicitas & beatitudo in terris. Hinc Christus: (...) Iohan.17.3."
22)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X, xiv: "In quos fines hominem creavit Deus ad Imaginem suam? 1. Ut Deus cum in se & sua natura invisibilis sit, suam essentiam & naturam quodammodo visibilem in homine(tanquam in speculo) redderet: & hac ratione se agnoscendum homini exhiberet. Nam proprius finis & usus imaginis est, ut is cuius imago est, per eam agnoscatur. 2. Ut Deus sic agnitus ab homine, ab eodem amaretur, coleretur, & glorificaretur."; 이상의 설명은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1542, 1545) 1문 1답을 상기시킨다. "사람의 생애에 첫째 목적은 무엇인가? 인생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와 연합(cognitio & communio Christi)이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구원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그것의 목적(finis cognitionis Christi)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전자는 언약론과 기독론에 해당하고, 후자는 구원론과 교회론에 해당한다. 여기서 구원론은 다시 내적 연합(communio interna)을 의미하고, 교회론은 외적 연합(communio externa)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1559)를 상기시킨다.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첫번째 책 제목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번째 책 제목을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달아 두었다. 세번째 책과 네번째 책은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로써 구원론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초대하시는 외적 보조수단들과 교회론이 다루어진다. 칼빈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던 카스파 올레비아누스(Casper Olevianus, 1536-1587)의 1592년판 『기독교 강요』에는 독자들을 위해 별도의 방법론을 첨부하였는데, 그것에 따르면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저술 목적은 두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 관한 지식이다. 그런데 이 둘은 평행한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에 관한 지식이 가능하다. 전자가 후자의 참됨을 규정한다.[23] 장로교 신학자 토마스 카트라이트(Thomas Cartwright) 역시 비교할 만하다. 그의 책 『기독교에 관한 논집』(*A Treatise of Christian Religion*)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근거로, 첫째 신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연적이며, 둘째 신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셋째 그것의 열매

23) *Olevianus' Institutionis Christianae Religionis Methodus & Dispositio: seu, Totius Operis Argumentum, 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oanne Calvino Authore* (Genevae 1592): "scopus authoris in hac Institutione Christiana duplex est: prior, Cognitio Dei, qua ad beatam immortalitatem perueniatur, Altera, nostri, ad priorem illam destinata"; 리차드 멀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 이후 재출판된 여러 편집본들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그 중 올레비아누스의 1592년판이 가장 좋은 편집본들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Cf. Muller, *The Unaccommodated Calvin. Studies in the Foundation of a Theological Tra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68, 73f.

는 영원불멸의 생명과 참된 행복이라 말하고 있다.[24] 칼빈, 카트라이트와 같이 부카누스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론적이며 동시에 실천적 의미를 제공해 준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없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목적은 부카누스의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한 존재론적 측면, 신지식의 근원과 관련한 인식론적 측면 그리고 구원의 삶에 관련한 역사적, 실천적 측면이 상호구별되면서 또한 연관되어 있다.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구조에서 존재론적 측면은 한분 하나님의 실체와 위격들의 관계에 해당한다면, 인식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은 피조세계에 따른 삼위일체의 계시적 경륜에 해당한다. 이러한 전통 아래 부카누스에 있어서 존재론적, 인식론적 측면은 신학의 원리를 구성하며 역사적, 실천적 측면은 신학의 각론을 채운다. 부카누스의 조직신학에서 모든 신학주제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바지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부카누스 신학의 총화다.

Ⅳ. 부카누스의 신학강요 구조와 쉰타그마(Syntagma) 구성

부카누스의 신학강요는 교육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으로 출판되었다. 신학 후보생들이 성경에서 얻은 파편적인 진리 지식을 전체 성경의 조망 아래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지어 이해하도록 한 것이 출판동기다. 특정한 방

24) Cartwright, *A Treatise of Christian Religion* (London: Felix Kyngston, 1611, 1616), 1-2: "Q. What principall matter doe you learne out of this Scripture? Answ. I learne, what is the chiefest, & most necessary knowledge. Q. What knowledge is that? A. The Christian Religion, heere called the Knowledge of God, and in the Schooles commonly called Theologie, or Divinitie. Q. What is the Christian Religion? A. a holy doctrine concerning God, revealed and taught by Christ, shewing the principal meanes to gloriefie God, and thereby to come to life everlasting, and true Blessednesse."; 카트라이트 사후 대략 40년이 지난 시점에 완성된 소요리문답 1문 1답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것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고백으로 정착되어 있다. 부카누스는 이점에 있어서 주요한 선행자들 중 하나다.

법론을 따라 각각의 교리적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였다. 저술 방식은 주제들(loci)을 차례로 나열하고 각각의 주제는 문답형식으로 논의해 나아간다. 그러나 주제들의 단순한 평면적 나열 방식은 아니다. 전체 주제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쉰타그마 구조를 이룬다. 이 구조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교육에 적절한 자료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각각의 주제들에 의해 지식이 증가하고, 그 연관된 부분들의 온전한 교리 체계가 정당하고 유용한 내용으로 주어진다.[25] 부카누스에 따르면 이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내용을 더 쉽게 얻는다. 신학에서 구조적 방법론은 성경에 관한 방대한 석의적 소재들로 인한 고된 수고를 덜어준다.[26] 부카누스의 신학강요 서문에서 이러한 방법론적 구조를 활용한 앞선 개혁자들과 저서를 소개하고 있다: 멜랑흐톤, 무스쿨루스(Musculus), 마르티르, 칼빈, *Summa Theologicae, Loci Communes Theologici,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27]

부카누스는 로찌(loci)-방식을 자신의 신학강요에 활용하고 있으나 쉰타그마 체계를 따라 교리들의 내적 연관성을 구성한다.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이 성경 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 단순성에 근거하는 것처럼, 부카누스의 신학체계 안에서 교리들의 내용적 연관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총화로 귀결되는 구조다. 즉 주제들의 통합된 연속체는 교리들의 상호 연관성으로부터 삼위일체를 아는 지식의 여백을 채운다. 이러한 구성에서 인간의 논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카누스는 논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간주한다. 그에게 있어서 논리성은 학문 활동의 필연적이고

25) Bucanus, *Institutiones* 서문 중에서: "ex quo, quum usus postulat, tanquam ex promptuario, docendi materiàm minòre negotio reposcant, eiúsque membra quotidiana lectione foveant, & suis locis tantisper augeant, dum integrum corpus doctrinae suis coagmentatum partibus, in iustam & utilem magnitudinem exurgat."
26) Bucanus, *Institutiones* 서문 중에서.
27) Bucanus, *Institutiones* 서문 중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1559)에서 로찌-방식의 사용에 대한 멀러의 논의를 참조하라. Muller, *Unaccommodated* 29, 68-69.

유용한 도구다. 여기에 그의 로찌-방법과 쉰타그마 체계가 갖는 사변적 위험의 경계를 주목해야 한다. 부카누스는 신학함에 있어서 논리의 도구적 유용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성경으로부터 신학의 인식원리와 규범을 삼고 있다.[28] 그의 쉰타그마 신학체계에서 논리는 명백히 신학의 원리가 아니라 보조 수단이다. 교육을 위해 논리적으로 배열된 모든 신학 주제들은 신학 인식의 원리와 상충되지 않는다.

Ⅴ. 신학강요 구조와 방법론적 전제

부카누스의 조직신학 구조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그의 신학강요(1605)에 첨부된 구조도는 매우 유용하다. 여기에 그려진 신학강요 전체의 구조도는 아그리콜라(Agricola))와 라무스(Ramus)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29] 하나의 상위 주제가 두개의 종속 주제로 나뉘어지는 방식으로 전체 주제을 조망한다. 부카누스의 조직신학은 크게 신학의 원리들(principia)과 부분들(partes)로 나뉜다.

신학원리들은 사물의 원리 혹은 구성의 원리와 인식의 원리로 구분된다. 첫번째 원리는 오늘날 조직신학의 신론과 삼위일체론에 해당하고, 두번째 원리는 성경계시론에 해당한다. 신학 구성의 원리는 하나님의 단순성과 삼위일체 내의 위격들의 실제와 상호관계를 내용으로 한다. 신학 인식의 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근원으로서 성경(계시)을 다룬다. 이 원리들은 내용적으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전통의 세가지 구조다.[30] 즉 하나님의 본질에 따른 구조(secundum essentiam), 위격들의 상호관계에

28) Bucanus, *Institutiones* 서문 중에서: "non minius ad res divinas, quam ad humanas exponendas eam adhiberi fas est".
29) Cf. Muller, Post- Ref., vol. 1 (Grand Rapids, 2003) 183.
30) 김영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에 관하여", (안양대 신대원 1999); cf. 조성재,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의 삼위일체 교리와 비교를 통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의 구조적 개관성 연구』(서울: 개혁주의성경연구소, 2001).

따른 구조(secundum relativum), 피조세계와 관계(계시적 차원)에 따른 구조(ad creaturam)들이다. 부카누스의 조직신학 원리들은 이 세가지 구조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31]

신학의 부분들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를 따라 주제들이 다루어져 나아간다. 이 부분들은 인간의 두가지 영적형편, 즉 타락전 인간과 타락후 인간으로 나뉘어 관련 주제들이 논의된다. 신론과 성경계시론이 신학적 주제들(loci)의 기초와 원리를 구성한다면, 창조론은 신학의 나머지 주제들의 시작이다. 창조론과 섭리론은 신론과 분리되어 있고, 순서에 있어서 성경론 다음에 다루어진다. 여기에 타락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주요 테마로 채워진다. 타락후 인간의 상태와 관련하여 인죄론이 등장하고, 계속해서 기독론, 은혜언약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차례로 논의된다. 모든 주제들은 신학의 원리들을 위에 조직적으로 쌓아 올려지며 교의적인 통일성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분자들이다.

'외부를 향한 삼위일체의 사역들은 나누어지지 않는다(opera Trinitatis ad extra non sunt divisa).' 이 어거스틴 전통의 원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경륜을 바라보는 데에 통찰을 주지만 부카누스의 신학강요에도 방법론적 통찰을 제공한다. 이로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본질적 통일성이 신구약 성경의 참된 저자로 인한 통일성을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나온 모든 교리들의 통일성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카누스는 '우리가 이 교리들이 모든 세대에 주어진 것을 보는 것 만큼 하나님의 일관성이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빛난다'는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32]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요 같은 분이라는 사실에서 역사경륜의 모든 시대를 걸쳐 같은 진리를 교회에 전수해 주신다. 모든 역사를 한분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다는 방법론적 전제 아래, 부카누스의 신학강요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분리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구원교리의

31) Cf. S. G. Cho, *Trinitarische Theologie bij Guilielmus Bucanus († 1603)* (Apeldoorn: Holland bv., 2013), 47-77, 137-62.

모든 부분들이 유기적 통일성을 지향하는 구조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신학적 일체(unitas theologica notitiae Dei)'라 표현해 볼 수 있겠다.

Ⅵ. 부카누스 조직신학의 인식원리로서의 성경론

1. 역사적 논점 - 성경은 신학의 대상인가 원리인가?

개혁교회 역사에서 이 물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카누스의 신학 인식원리를 다루기에 앞서 이 물음과 연관된 하나의 논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7세기 중반 개혁교회의 마지막 신앙고백서인 『스위스 일치신조』(*Formula Consensus*, 1675)의 작성배경에는 상기 물음과 직, 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 볼 수 있는 역사적 동인이 있다. 스위스 일치신조를 공인할 당시 주요한 신학적 이슈 중 하나는 맛소라 사본의 신적 권위문제였다. 카펠루스(Capellus, 1585-1658)는 1624년 자신의 *Arcanum Punctationis Revelatum*에서 맛소라 텍스트의 히브리어 모음부호에는 신적 영감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또 다른 저술 *Critica sacra*(1650)에서 히브리어 본문은 손상되어 있는 것으로 가르쳤다. 성경을 원리 보다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33] 히브리어 사본에 대한 성경 본문비평은 제 4차 트렌트 종교회의(1546) 이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공연한 것이었다. 벨라르민(Bel-

32) Bucanus, *Institutiones*, Locus XX, vii ff.; Cf. CalvinInst. 1559, *CO* II, 313: 'Patrum omnium foedus adeo substantia et re ipsa nihil a nostro differt, ut unum prorsus atque idem sit; administratione tamen variat.'; *CO* L, 224, in de exgese van Gal. 4: 'Inde constituendum est, eandem semper fuisse doctrinam, et vera fidei unitate nobiscum fuisse coniunctos, unius eiam mediatoris fiducia nobiscum fretos, Deum patrem invocasse et eodem spiritu fuisse gubernatos. His omnibus consentandum est, discrimen inter nos et veteres patres non in substantia esse, sed in accidentibus.'; *Inst.* 1539-1554, *CO* I, 827: "Ergo in eo elucet Dei constantia, quod eandem omnibus saeculis doctrinam tradidit."

33) *GD* I, 161.

larmin, 1542-1621)은 개신교 신학원리인 오직성경의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소재를 활용하였다. 로마 가톨릭교회가 공인한 불가타 성경을 맛소라 사본의 대안으로 제시하므로 자신들의 성경에 대한 교회의 결정권을 강화하려 한 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레비타(Levita, 1469-1549)의 입장이었다.[34] 개혁신학자 폴라누스는 이러한 주장을 인지하여 비판하였다.[35] 북스토르프(Buxtorf, 1564-1629)도 *Tiberias, sive commentarius Masorethicus*(1620)에서 히브리어 모음의 영감을 변증하였다.[36] 개혁파에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보존하는 것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척결하는 데 매우 중대한 일이었다. 이것이 축자영감론 형태로 17세기 중반 스위스 일치신조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17세기 중반까지 개혁신학은 성경을 대상이라기보다 원리로 사용하기를 선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코케이우스(Coccejus, †1669)와 코케이우스주의는 개혁신학 내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맞게 하였다. 코케이우스주의의 단초를 제공한 코케이우스는 교의학에 있어서 언약의 역사적 관점을 크게 부각시켰다. 바빙크(Bavinck)에 따르면 그의 언약론적 신학방법론은 그전까지의 전통신학에 비해 새로운 것이었으며, 코케이우스 이후 코케이우스주의가 데카르드(Decartes)의 방법론을 수용하면서 18, 19세기 개혁신학의 몰락은 어디서나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코케이우스의 책『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관한 교리대요(*summa doctrinae de foedere et testamento Dei*, 1648)』는 성경을 교의학의 원리와 규범으로 뿐 아니라 대상으로 다루면서, 성경-역사적 교의학을 실현하였다. 성경신학을 전통신학에, 언약을 작정에, 역사를 사상에, 인간학적 방법을 신학적 방법에 대립시킨 것이다. 이로부터 바빙크는 그의 신학적 입장을 '영원하고 불변한 것'(언약의 실체)을 시간적이고 역사적인 것(언약의 경륜)의 흐름 안으로 끌어내려, 결국 '되어가는 개념(de idee van het worden)'을 하나님 자신에게도 투사했다'고 비판한다.[37]

바빙크의 비판에 찬반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코케이우스의 언약신학에서 이전 시대 정통 개혁신학의 신구약의 통일성이 강조되기보다 신적 경륜의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38] 그에게 있어서 성경은 신학의 원리이기 보다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슈렝크(Schrenk)에 따르면 코케이우스주의는 독일 경건주의, 특히 슈페너(Spenner)에 큰 영향을 미쳤고, 독일 루터파 벵겔학파에 경륜적 역사인식,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천년주의를 제공하였다.[39] 코케이우스 이후 코케이우스 후계자들이 받아들인 데카르트의 회의적 방법론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무신론적 인본주의 사조는 18세기 이후 신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성경의 참된 저자이신 하나님은 물음으로 남겨졌고, 역사의 틀 안에서 성경은 철저히 신학의 대상되었으며, 그 결과 삼위일체의 실체적 통일성에 근거한 신구약의 통일성은 사라지고, 성경의 신적권위도 의심받게 되었다. 오늘날의 개혁신학이 회복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18세기 이전까지 개혁교회의 신학 패러다임에서 전제되었던 성경에 대한 입장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34) Muller, "The Debate over the Vowel Points and the Crisis in Orthodox Hermeneutics", in Muller, *After Calv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146-55, 246; ROSS, "The Battle Over the Hebrew Vowel Points", 3-13; Van den Belt, *The Authority of Scripture in Reformed Theology* (Leiden: Brill, 2008), 158-63. 레비타는 맛소라 사본을 5세기 중엽에 발생한 것으로 보았고 5세기 초 불가타 역본보다 후대의 것으로 여겨 가치절하하였다.
35) Pollanus, *Syntagma Theologiae Christianae, Hanoviae* (Hanovae, 1615), Cap. XLII. p.83 ff.
36) Cf. 이은선, "스위스 일치신조와 개혁파 스콜라주의".

37) *GD* I, 160; cf. 조성재, "코케이우스와 코케이우스주의" (취리히: 유럽개혁주의성경학회, 2009), 7.
38) Coccejus, *Summa Doctrina de Foedere et Testamento Dei*, in *Operum Johannis Coccei* (Amsterdami Ex Officina Johannis a Someren, 1673). 예를들면 구약과 신약의 죄 용서의 차이 혹은 구약에서의 죄 용서의 불완전성,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은 비유일 뿐 도덕법으로 보지 않는 견해는 성경을 언약 역사의 점진적 발전의 틀로 파악하였던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337-53).
39) Schrenk, *Gottesreich und Bund im älteren Protestantismus* (Darmstadt, 1967), 1-13.

2. 부카누스의 계시 개념

모든 삼위일체의 외부를 향한 역사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적 방법론 전통에 따라 부카누스의 조직신학에서 신학구성의 원리 혹은 사실의 원리로서 하나님이 신학인식의 원리인 자신의 계시와 분리되지 않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향한 자신의 모든 경륜사역과 분리되지 않고 역사하신다면, 피조세계를 향한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경륜의 하나로 이해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notitia Dei)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기계시로 주어진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카누스의 조직신학에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적 방법론은 신학구성의 실체적, 원리적 핵심을 제공한다. 부카누스 신학의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혹은 무엇인가?(Locus I. ix)". 부카누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를 아는 지식의 총화로서 이 물음에 답을 한다. 한분 하나님과 관련하여 신론이 다루어지고, 실재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삼위일체론이 다루어진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은 그분의 실체든 그분의 위격들이든 자신의 계시로부터 알려진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인식 원리인 하나님의 자기계시와 분리되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어디로부터 그를 알 수 있는가?' 부카누스에 따르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지식은 두가지 근원에서 가능하다. 하나는 자연의 책 혹은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다른 하나는 성경의 책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능하다. 전자로부터 우리는 시편 19:1-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에 묘사한 것 같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한다. 첫번째 계시적 근거로부터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과 긍휼의 조물주로서 나타난다. 특별히 작은 우주로서 인간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자연의 책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관한 일종의 계시적 증언이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이 계시로 말미암은 신지식은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불충분하고 미약하다.[40] 이런 이유로 구원을 얻기 위한 다른 계시,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두번째 근원인 성경의 책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첫번째 계시적 근원으로부터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번째 계시적 근원으로부터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후대 조직신학 용어를 빌어 표현하자면, 전자는 일반계시 후자는 특별계시에 해당한다.

후자의 계시와 관련하여 부카누스는 다시 두가지 유형의 계시방식을 설명한다. 그것은 계시 기록성과 관련한다. 부카누스는 Locus XLII, vi 에서 계시 형성 방식을 다루는데, 특별계시는 모세 기록 이전과 모세 기록 이후로 나뉘어 설명된다. 하나님은 모세 이전에 살았던 아담, 에녹, 노아, 멜기세덱, 이삭, 야곱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셨는데, 방식에 있어서 천사를 통하여, 밤에 환상으로, 낮에 나타나 보이심으로, 꿈을 통해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목소리로 계시하셨다.[41]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계시를 기록으로 정착시키셨는데, 그렇게 성경기록을 남기셔서 그들 조상들의 가족들(familias privatas)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numerosum populum)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생생한 목소리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성경의 영감에 대한 부카누스의 입장을 발견하게 된다.[42] 부카누스는 Locus IV, xvi에서 기록전 계시 방식과 기록의 필연성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모세 이전, 기록된 계명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존재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인생들에게 자신의 뜻

40)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 ii.
41) Bucanus, *Institutiones*, Locus, XLII, vi: "Capita familiarum, seu capita Patrum in suis cognationibus, seu homines Veteris Testamenti ante & post diliuuium usque ad Mosem, quibus Deus se patefecit per Angelos, visiones nocturnas, apparitiones diurnas, & somnia, idque voce hominibus perceptibili, (...)."

을 계시하셨는가?" 부카누스는 이에 대해 전치사 '통하여(per)'를 사용해 대답한다. "신탁을 통해 혹은 하나님 자신의 음성을 통해 혹은 우림과 둠빔을 통해, (...) 혹은 하나님께서 눈 앞에 보이는 환상이나 형상을 베푸심으로, 혹은 깨어있는 이성을 통해 혹은 꿈을 통해서 (...)"[43] 이것들은 성경 기록 이전의 계시 방식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시는 기록되었어야 했다. 부카누스는 기록의 필연성을 네 가지로 열거한다. 첫째 인간의 망각, 둘째 모든 종류의 부패로 향하는 인간의 편향성, 셋째 거듭 거듭 새로운 종교를 추구하는 교만, 넷째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위조된 계시로 사람의 영을 타락시키는 사단의 간계 때문이다.[44]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준비시키셨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십계명을 계시하셔서 성경이 진리로서의 신적 권위를

42) Bucanus, *Institutiones*, Locus, XLII, vi: "Tandem ubi tempus erat non iam familias privatas, sed nomerosum populum in vera Dei cognitione docere, Moses a Deo excitatus, cultum & Ecclesiam in populum constituit: & in hunc finem Sacerdotes & Levitas instituit, quibus certas leges divinitus praescripsit, secundum quas Deus populum Israeliticum regi voluit: & non solùm viva voce, sed Scriptis ex Dei mandato Verbum Dei tradidit: Nam ante Mosem fuisse Scripturam divinitus inspiratam non legimus." 히페리우스는 다음 세가지 계시방식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샘으로 언급한다: "1. Occulta Spiritus sancti revelatione. 2. Ex verbo Dei, sive sermone. 3. Ex admirandis ipsius operibus, quae in conditione, conservatione & gubernatione mundi universi observantur, atque Deum esse, eundemq: esse optimum, maximum potentissimumque; infinitis modis declarant(Method. Theol., Basel 1567, 74-75)".

43)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V, xvi.

44)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V, xvii: "At cur verbum Dei Scriptis traditum est? 1. Propter oblivionem humanae mentis. 2. Propter proclivitatem hominum in omne genus corruptelarum, quibus divina opera corrumpuntur. 3. Propter audaciam confingendi identidem novas religiones. 4. Propter astum Satanae transfigurantis se in Angelum lucis, & mentibus hominum falsis revelationibus illudentis."; 특별계시의 기록의 필요성에 대한 칼빈의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라. Calvin, *CO* II, 55: "Nam si reputamus quam lubricus sit humanae mentis lapsus in Dei oblivionem, quanta in omne genus erroris proclivitas, quanta ad confingendas identidem novas et fictitias religiones libido: perspicere licebit quam necessaria fuerit talis coelestis doctrinae consignatio, ne vel oblivione deperiret, vel errore evanesceret, vel audacia hominum corrumperetur."; cf. "Die Westminster-Confession von 1647", Cap. 1: "nec Ecclesiasua contra carnis curruptelam, contra malitiam mundi Satanaeque praesidio foret ac solatio destituta." in E.F.K. Müller, *Die Bekenntnisschriften der Reformierten Kirche* (Waltrop: Hartmut Spenner, 1999), 542.

갖게 하셨다(Scripturam quasi consecravit). 그는 모세에게 이 계명을 기록하도록 수여해 주셨다. 이후 자신의 말씀을 선지자들와 하나님이자 참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하여 전수하셨다. 기록으로 정착된 것 보다 입술의 말씀들이 더 많이 베풀어졌으나, 그 둘사이의 어떠한 모순도 존제하지 않으며, 기록된 말씀들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45]

부카누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계시가 발생하는 방식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계시의 주체로서 등장하신다. 이점은 부카누스 신학에 있어서 신지식과 관련해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관점이다. 성경의 통일성과 완전성은 모세 전,후 하나님이 계시의 동일저자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부카누스에게 있어서 모세 전, 후 계시의 차이는 다만 계시 방식에서의 차이를 의미한다.

3. 성경과 성경저자

부카누스가 성경의 저자를 강조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론과 성경론은 그의 신학 원리에서 상호간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신론은 (locus, I, de Deo) 하나님의 존재와 신지식의 기원을 묻는다. 내용적으로 계시론이 신론의 시작이다. 성경론을 다룸에 있어서(locus IV, de Scriptura sacra)는 성경의 참된 저자를 물음으로 한분 하나님에 관한 신론적 내용이 전개된다.

부카누스에게 성경의 책은 구약과 신약 모두를 의미한다. 이 둘은 뛰어난 방식으로 기록된 책이다. 부카누스는 성령이 성경 기록의 주체요 참된

45)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V, xvi.: "(...) per Prophetas, per Christum θεάνθρωπον: denique per Apostolos Christi, tum ore, tum scripto, etsienim plura dicta aut facta sunt, quàm scripta, tamen n diversa:& haec ipsa scripta quae extant, sufficiunt."

저자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 형용사 "ἀμεσος (직접적인)"를 사용한다. "성경의 직접적인 저자는 성령이시다."[46] 분배의 역사에 있어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라 말할 수 있지만, 피조세계와의 관계에 따라 말하자면 그 저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다. "누가 성경의 저자인가? 하나님 자신이다. 그는 자신에 의해 불리움 받고 성령에 의해 감동된 사람들, 곧 비서관 같은(tanquam amanuenses)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성경 기록들로 계시하시었다."[47] 여기서 부카누스는 성경기록자들을 하나님에 의해 말씀들을 기록한 비서관들 혹은 서기관들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기록된 것(dictata)과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것(inspirata)이라는 사실로부터 '거룩한(sacra)' 이라는 형용사를 Scriptura에 첨가할 수 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거룩한 역사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른다. 성경은 참된 믿음과 선한 행실의 규범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경전이다. 또 성경은 종교의 모든 논의에서 논쟁의 여지없는 재판관이다.[48]

기록계시에 있어서 부카누스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부연한다. 율법에서 모든 인생들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있다. 복음에서는 믿음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드러난다.[49] 부카누스는 에베소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근거로 복음을 신비하고 비밀스런 성령역사의 계시라 부른다. 이 복음은 '세상에는' 알려져 있지 않는 신비다.[50] 비록 율법과 복음이 구별될지라도, 상호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요 같은 하나님이 그 모두의 저자시며 유효하게

46)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 iv; cf.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V, i.
47)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V, ii: "Deus ipse, qui per homines immediate a se vocatos & Sp. Sancto afflatos, tanquam amanuenses, voluntatem suam scriptis prodidit."
48)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V, i.
49) Bucanus, *Institutiones*, Locus, XXI, iii.
50) Bucanus, *Institutiones*, Locus, XXI, iii: TimesEvangelium dicitur mysterium, i. Arcanum absc ditum à seculis"

하시는 주체이기 때문이다.[51] 부카누스에게 있어 신구약 언약의 통일성은 그렇게 하나요 같은 저자의 실체적 통일성에 기인한다.

이로써 부카누스의 성경관은 성경 기록자들과는 구별되는 저자 중심의 신론적 관점을 견지한다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신중심적 관점이 아니라, 신중심적-삼위일체적 관점이다. 하나님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부카누스는 성부께서 항상 성자를 통해 복음을 계시하셨다고 이해한다. 성부는 복음을 성자를 통해, 성자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교회에 알리신다. 부카누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계시의 내용과 주체가 되신다고 가르친다.[52]

트렐카티우스(Trelcatius) 같은 당대 개혁신학자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견해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53] 성경의 참된 저자로서 하나님이 성경 기록자들 보다 강조된다. 이런 성경관은 부카누스 시대를 전후로 거의 모두의 공통적인 견해다. 성경을 기록했던 모세, 선지자들, 사도들은 도구적 원인들(instrumentales causae)이다.[54] 어거스틴 전통의 삼위일체

51) Bucanus, *Institutiones*, Locus, XXI, ii.: "In quibus conveniunt? 1. Causa Efficiente: nam unus & idem Deus author est Legis & Evangelii."
52) Cf. Bucanus, *Institutiones*, Locus, XXXVII, vii; XXXVIII, i; XXXVI, xxiv; XLVI, xlviii; XX, ii.
53) Cf. Trelcatius, *Scholastica et Methodica Locorum Communium S. Theologiae Institutio* (Lvgdvni Batavorvm: Ex Typogr. Christoph. Guyotij, Imp. Jo. Orlers, 1604), 5. 트렐카티우스는 하나님을 성경의 유효한 원인(Causa efficiens Scripturae)으로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의미한다. 다음 문장을 참조하라: "Causa Efficiens Scripturae, est Deus Pater, in Filio, per Spiritum. Hanc enim Pater Ecclesiae exposuit sermone enuntiativo, & operibus Gratiae & potentiae, Communiter, & Singulariter, Ordinarie, & Extraordinarie. Filius utroque modo in novo Testamento confirmavit, Spiritus sanctus sermone ὀν διαθέτῳ seu testimonio interno cordibus fidelium obsignat." 트렐카티우스는 또한 하나님이 성경의 단순의 원인뿐만 아니라 저자라고 가르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권위를 갖는다. Cf. 6: "Quae autem Scriptura Deum habet Authorem, divinam habere Authoritatem necesse est.' 13: 'Utriusque author Deus est, (...)."
54)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V, ii: "Instrumentales causae sunt Moses, Prophetae, & Apostoli."

구조에서 피조세계와 관련한 모든 일에 대해 삼위일체의 주체성이 항상 보존되어야 하는 것처럼, 부카누스는 그렇게 성경의 더 큰 저자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정황이나 역사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성경의 참된 저자와 기록자들을 분명히 구별하여 성경의 신적 기원을 좀더 강화하고 있을 뿐이다.

4. 성경의 영감

(1) 'dictata' 개념

부카누스가 그처럼 성경저자에 초점하여 논거할 때, 그가 사용하던 몇 가지 수식어들이 주의를 끈다: 'dictata(받아쓰여진)', 'immediate(직접적인)', 'conscripta(기록되진)'. 이 단어들은 성령을 통한 성경의 영감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한다. 예를들어 부카누스는 성령에 의해 받아 쓰여진(dictante Spiritu sancto) 모든 기록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필사되었거나 또는 검증되었다(conscripti vel approbati)고 표현한다. 여기서 dictata와 conscripta가 구별되고 있다. 요점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이 그것을 받아 적은 것처럼 성경을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성경은 유일한 경전이요, 믿음과 선한 행실을 위한 규범이자 기준이다. 모든 교회의 가르침은 이 규범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므로 모든 인생이 하나님에 관한 교리들과 그것들이 참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55]

어떤 근거로 신론적 'dictata' 영감을 확증하며, 어떤 근거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록이 하나님에 의해 받아 쓰여진 것이라 확신하는가? 부카누스는 여기에 두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곧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 전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면적 증언에 관련하며, 후자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존하였다는 외적증거를 의미한다. 우리 논의에서 주목하는 것은 내적 증거다. "내적 증거은 독특하다. 성령은 항상 외부로부터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시며, 우리 마음에 성경을 각인시키신다."[56] 성령은 그의 증거를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 마음에 두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의 권능을 볼 수 있게 하신다.[57] 이러한 내적 증거는 무엇보다 우리를 강하게 한다. 이것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칼빈에서와 같이 부카누스에게 있어서도 내적 증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적용과 밀접히 연관된다.[58]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택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계시의 내적 조명의 사역과 병행하기 때문이다.[59] 이점에서 부카누스의 성경론은 구원론과 서로 조우하게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중생한 자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임을 고백할 수 있다. 그

55)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V, iv: "Qui dictante Spiritu sancto a Prophetis & Apostolis sunt conscripti vel approbati, ut soli sint canon, regula & norma fidei & bonorum operum, ad quam quaevis alia doctrina est exigenda, & examinanda: ut intelligatur esse doctrina Dei, & vera.": cf. Locus, IV, i.: "et Sacra dicitur, quia a Deo dictata & divinitus inspirata, (...)"

56)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V, xii: "Internum Testimonium, unicum est, nempe Spiritus Sancti intus alloquentis cor nostrum, & dictantis Scripta illa esse θεόπνευστα, & ea cordibus nostris obsignantis"; 부카누스에게 있어서 내적증거는 조명과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지는 않다. 다음을 참조하라. Locus, XVII, viii: "Sed respectu gratiae & illuminationis, cuius Spiritus Sanctus est proprius effector in cordibus hominum, quatenus videlicet proprium & immediatum officium Spiritus Sancti est, illuminare nos, & in veritatis lucem introductis iter ad Patrem & Filium, & seipsum nobis patefacere"; cf. Piscator, *Aphorisimi Doctrinae Christianae, ex Institutionae Calvini excerpti* (Herborn 1589) 16.; cf. Van den Belt, The Authority of Scripture in Reformed Theology , 335.

57) Cf. "Der grosse Westminster-Katechismus" von 1647, in Müller, *Die Bekenntnisschriften*, 613: "solus Dei Spiritus in Scripturis et cum Scripuris testimonium praebens in corde hominis plene illi potest persuadere."; "Confessio Belgica" 1561, in Müller, *Die Bekenntnisschriften* 234: "quod Spiritus S. in cordibus nostris testetur, a Deo profectos esse, comprobationemque eius in se ipsis habeant."

58) Bucanus, *Institutiones*, Locus, XVII, viii; cf. Calvin, *CO* II, 58, 60.

59)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 v: "Interna, viva, & efficaci Sp. Sancti revelatione, quae solis electis deputata est: non diversa tamen à Verbo, sed verbo tanquam organo eorum cordibus infigitur."

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것은 오직 믿는자의 신학에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아 쓰여진 기록들(a Deo dictata esse Scripta)'이란 내적 증거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진리를 증거하시는 유일한 존재인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부카누스는 신앙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언제나 자신에 대해 자신의 말씀 안에서 충분한 증인이신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은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 각인되기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에 앞서 있지 않다."[60] 따라서 성경을 받아 기록하도록 하신 참된 저자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뜻을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하시는 주체도 하나님 자신이시다.

'dictata' 영감론은 부카누스 만의 독특한 것은 아니다. dictata 개념은 부카누스 이전 시대의 루터(Luther), 츠빙글리(Zwingli), 부써(Bucer), 불링거(Bullinger), 히페리우스, 칼빈, 아레티우스(Aretius) 그리고 잔키우스(Zanchius) 등에서 나타나고, 부카누스 동시대의 피스카토르(Piscator), 트렐카티우스, H. 알팅, 유니우스, 케커만(Kekkermann), T. 카트라이트에도 발견되며, 부카누스 후대의 라이데커(Luydekker), 루베르투스(Lubbertus), 길레스피(Gillespie), 고마루스, 마레시우스, 마르티니, 판 마스트리히트(Van Mastricht), 파레우스, 폴라누스(Pollanus), 판 레이쎈(Van Rijsse), 마코비우스(Maccovius), 리베트(Rivet), 롤록(Rollock), 투레틴(Turretin), 트위스(Twisse), 어셔(Ussher) 등 거의 모든 주요 개혁신학자들에게도 공통적이다.

(2) 기계적 영감? 혹은 유기적 영감?

부카누스의 'dictata' 영감론은 소위 기계적 영감(mechanische inspiratie)인가 유기적 영감인가? 일반적으로 기계적 영감은 성경이 기록

60)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V, xii: "Sicut enim Deus solus de se idoneus est testis in Verbo: ita non ante Fidem reperit verbum in cordibus nostris, quàm interiore Spiritus testimonio obsignetur."

될 때 성경기록자들의 스타일이나 성격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는 성경 기록자들이 성령에 이끌리어 성경을 무의지적이고 무의식적으로 기록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이점은 20세기 신 칼빈주의자들이 기계적 영감을 비판했던 주된 논점이다. 예를 들어 바빙크는 기계적 영감론자들이 성경 기록자들을 성령의 손에 있는 무의지적, 무의식적 도구들로 간주하였다고 비판했다.[61] 이러한 비판은 자연스럽게 기계적 영감론이 성경을 비역사적 혹은 하늘에서 떨어진 책으로 전락시켰다는 또 다른 비판으로 연동되었다. 이로써 'dictata' 영감론은 별다른 저항없이 '기계적'이라는 용어로 동일시 될 수 있었고, 19세기와 20세기 들어 많은 복음주의자들뿐만 아니라 개혁신학자들에 의해서도 거부되었다.[62] 그들은 기계적 영감론 대신 역사적, 인간적 요소들은 물론 초월적, 신적 요소들도 절충되어 있는 유기적 영감론을 선호했다.[63]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부카누스의 영감론에서 주목할 것은, 그가 성경기록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부카누스에 따르면 성경기록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불리움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근거가 되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64] 그런데 기록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신적 언어를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라 기록자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성경 기록에 사용하셨다. 부카누스에 따

61) *GD* I, 401.
62) Cf. Pache, *Inspiratie en het Gezag van de Bijbel*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1977), 61-65. 파체에 따르면 가우센은 기계적 견해를 '받아쓰기(dictaat)'-이론이라는 말과 함께 버렸고, 샵피어는 '기계적 받아쓰기(mechanische dictering)'는 넌센스라 생각했다. 파체는 이 이론에 동조하는 몇몇 사람들을 거명하고 있다. 예를들어 Gaebelein, Preus, Warfield, Sauer, Lamorte, Young; cf. Veenhof, *Revelatie en Inspiratie*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1968), 21.
63) Cf. Veenhof, *Revelatie en Inspiratie*, 250-52, 267-68. 유기적 영감론은 주로 카이퍼나 바빙크 같은 신칼빈주의자들에 의해 전면에 내세워졌다; 참고, Van Keulen, *Bijbel en Dogmatiek* (Kampen: Kok, 2003), 29-31, 79, 106ff. & 159. 카이퍼와 바빙크의 성경관 비교와 관련해 판 퀼른의 결론을 참조하라(171-74).
64)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X, xiii. 이와 관련해 부카누스는 바울 사도를 예를 들어 제시한다.

르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한 것과 사도들이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 언어들이 성경기록자들의 일상 언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65] 그것들은 기록자들의 스타일과 일상을 담아낼 수 있었던 가장 편한 언어였다.

부카누스는 모세를 통해 창조의 기사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창세기의 기록자라고 보았다.[66] 성경 기록의 역사성을 고려하고 있는 셈이다. 칼빈은 모세가 성경 처음 다섯 권의 기록자라는 것을 염두하고 창세기를 주석해 나아간다.[67] 이로써 창세기의 계시 사건은 모세 시대와 많은 시간 차이가 있음에도, 기록자의 상황 곧 기록의 역사성을 따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부카누스에게 있어서 성경의 처음 다섯권의 책이 '모세의 책들'로 여겨지는 것은 낯선 것이 아니다.[68] 후대 개혁신학자 푸티우스는 부카누스와 같은 성경 영감에 있어서 dictata 개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선지자

65)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X, xiii.
66) Bucanus, *Institutiones*, Locus, V, iii.
67) Calvin, *CO* 23, 14ff; cf. Moon, *Christ the Mediator of the Law*, (Bletchley 2006), 16-17; cf. PARKER, *Calvin's Old Testament Commentaries* (Louisville, 1986), 122; 성경 자체가 성령의 산출물이라는 사실과 관련한 반 스페이커의 다음 글도 참조하라. Van 'T Spijker, *Calvin: Biographie und Theologie*, Vol. 3.2. (Gö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 210: "wel op dat Calvijn de uitdrukking 'Diktat des Geistes' herhaaldelijk heeft gebruikt en dat het tevens niet zijn bedoeling was, dat hiermee de persoon van de bijbelschrijvers ontkend werd. Bij Calvijns leer past de kritische term 'mechanisch' dan ook niet."; Cf. Peels, "Het Woord is leven - over de Heilige Schrift" in In : Gegrond geloof : kernpunten uit de geloofsleer in bijbels, *historisch en belijdend perspectief*, (Zoetermeer, 1996), 66-67; 노이저는 칼빈이 어떤 경우에 필사(diktieren)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밝히고 있다. 그결과 그는 칼빈에게 있어서 영감은 축자영감설(Sachinspiration)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있다. 노이저는 칼빈에게 있어서 필사라는 단어를 대부분 문자적인 면에서가 아니며, 비본래적인 것으로(uneigentlich) 해석하고 있다. 그는 성령의 부어지심으로 이 단어를 설명한다. 노이저에 따르면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의 실용적 사용, 즉 성경해석과 설교에 더 관심이 있었으므로, 개혁주의 정통신학의 영감론은 칼빈의 것과 맞지 않는다 보았다. Cf. Neuser, "Calvinus Verständnis der Heiligen Schrift", in Neuser W.H. ed., *Calvinus Sacrae Scripturae Professor* (Grand Rapids: Eerdmans, 1994), 58-71. 내 견해로는 여기서 노이저가 성령의 내적 사역이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면, 그의 견해는 정당하다. 그러나 칼빈 전, 후세대 개혁자들에 있어서 'diktieren'라는 표현이 성경의 신적 근원, 신적 권위와 신적 속성을 암시하기 위한 작은 단어였다는 점은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들과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원치 않는 것을 쓰도록 강요됨이 없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썼다고 진술해 주고 있다.[69] 우리는 16세기와 17세기 개혁신학자들이 'dictata' 영감론으로 기우는 특별한 경향성과 의도를 좀더 세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부카누스와 그의 동료들이 성경의 영감을 dictata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해서, 성경기록자들이 단지 무의지적이고 무의식적인 도구들이었다는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계시 기록성을 설명하는 'dictata, amanuensis, immediate'라는 용어들 어간 어디에서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무의지, 무의식이 거론된 일은 없다. 16, 17세기 개혁신학자들의 의도는 성경기록자들의 상황과 역사성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성경의 유일하고 참된 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려 했던 것뿐이다. 그들이 활용하였던 상기 형용사들은 성경관에 있어서 신론적 이해를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한 것이지, 성경기록자들의 기계적 도구화를 의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주체성은 부카누스의 성경론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신학 각론에서도 두드러진다. 외부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과 분리되지 않는 것과 같다. 모든 역사는 하나요 같은 삼위일체의 사역이요, 그렇게 성경의 모든 기록들도 하나요 같은 저자의 기록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dictata' 영감론의 문제는 영감론의 내용상 문제라기보다 '기계적'이라는 용어사용의 타당성 문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기계적'이라는

68)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V, vi.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하이여스(Hayes)의 견해에 동의할 수 있다. 멀러에 따르면 하이여스는 성경이 무오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과 따라서 그 안에는 어떠한 역사적 요소들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한다. Cf. Muller, *Post-Reformation Reformed Dogmatics*, Vol. 2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512. 멀러는 하이여스가 정통주의 신학에서 성경해석과 주석이 강하게 강조되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고 정당하게 지적하고 있다.
69) Voetius, *Selectarum Disputationum Theologicarum* (Utrecht: apud Joannem à Waesberge, 1648), 45-46: "XIX. An scriptores sacri Prophetae scil. & Apostoli omnia intellexerint, quae scripserunt; ... Resp. Aff. (...)" "XX. An volentes, an inviti et ad scriptionem compulsi scripserint scriptores sacri? Resp. Aff. Pr. Neg. Post."

용어가 주는 부정적 뉘앙스 때문이다. 아울러 16, 17세기 개혁신학에서 전제된 원리로써의 성경 이해와 18세기 이후 신학의 대상이 된 성경 이해 사이의 패러다임 변화도 고려되어야 한다. 20세기 바빙크가 직면한 신학 사조와 방법론, 가령 역사비평 방법은 16, 17세기 부카누스 시대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70] 오히려 성경권위에 대한 로마가톨릭의 성경관이 큰 문제로 자리 하였다. 성경을 오직 역사와 인간의 산물로 보는 우리시대의 신학 패러다임에서는 오히려 유기적 영감의 확대 적용을 경계해야 한다.

바빙크나 부카누스나 성경이 신적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다만 각자가 속한 시대 상황에서 전자는 기록자의 역사성을 확보해야 했고, 후자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강조하려 했다. 중요한 것은 21세기 개혁신학과 개혁교회를 위해 어떤 성경이해를 확보하고 회복해야 하는가이다. 이를 위해 우리시대 성경이해를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5. 성경의 자체가신성

『스위스 제 2 신앙고백서』(1562)에서 성경책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이 성경의 주체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한다.[71] 성경의 권위가 신 중심적 관점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듯 성경의 모든 속성은 하나님에 관한 신론적 이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가 하는 문제는 사람이 성경으로 무엇을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가와 관련된다. 이런한 점에서 성경을 읽는 방법은 성경의 저자를 누구로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질문에 종속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카누스는 하나님이 성경의 참된 저자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경의 신적 권위를 확신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계시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자기계시라는 사실에 따라 성경이 갖는 권위는 외부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 성경의 권위, 탁월성, 진리성, 완전성은 하나님이 진리자체이신 만큼 필연적이다.[72] 성경의 자체가신성은 천사들이나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성경의 진리는 사람의 동의로부터 기원하지 않는다.[73] 따라서 진리는 사람의 발굴과 발견에

70) 유기적 사고방식은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에서 등장한 것이라 본다. '유기적'이라는 용어는 바빙크 시대의 산물이다. 리더보스에 따르면 바빙크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유기적 세계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Cf. J. Ridderbos, *Gereformeerde schriftbeschouwing en Oorganische opvatting* (Kampen 1926), 11. 리더보스는 이러한 경향 자체가 그 시대에 현대적 의식의 특징적 성격에 연결되어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양한 독일 사조들이 자리하고 있다 (7-11). 리더보스가 지적하는 파울선의 새로운 유기적 관점의 등장을 참조하라 (14-16; cf. Paulsen, "Geschichte des gelehrten Unterrichts", Bd. II, 191f). 리더보스는 바빙크의 유기적 영감론은 '새로운 시대의 열매' 혹은 '우리시대의 유행'이라 보았다(34); Van Keulen, *Bijbel en Dogmatiek*, 101; Maris, *Geloof en Schriftgezag* (Apeldoorn, Apeldoornse Studies, nr. 36., 1998), 25.

71) Cf. in Müller, *Die Bekenntnisschriften*, 170; Cf. de Confessio gallicana van 1559 in *Müller, Die Bekenntnisschriften*, 221: "Nous croyons que la parole de Dieu qui est contenue en ces livres est procedée de Dieu, duquel elle seule prend son authorité et non des hommes."

72)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V, ii: "Ex quo scripturae Adiuncta, Authoritas, Excellentia, Veritas, & Impletio(quae tam necessaria est, quàm necesse est Deum veracem esse) dependent." 이 인용문을 통해 신론과 성경의 속성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이 그의 속성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의 속성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 폴라누스의 다음을 참조하라: Polanus' Synt.'s Epistola: "Instrumentum Theologiae est Scriptura Θεόπνευστος, (...) Materia ex qua Theologia constat, sunt principia ac praecepta ... nec aliter nisi per revelationem divinam cognita.(...) Forma eius interna atque essentialis est veritas divina, sancta, iusta, perfecta, aeterna, immutabilis, ideae Theologiae quae in Deo est imitatrix: veritas nos sanctificans, veritas nos veraces Deoque: quam simillimos reddens."

73) 그와 반대로 로마가톨릭 교회들은 성경에 대한 교회의 판단을 표준이라 보았다. 이로 인해 맛소라 텍스트의 모음부호에 대한 텍스트비평은 그것을 위해 기초였다. 긴스부억과 로스에 의해 인용된 모리누스(또는 Morin, 1591-1659)의 '우스광스런' 다음 주장을 참조하라. (Ginsburg, "Massoreth Ha-Massoreth" in H. M. Orlinsky (ed.), *The Library of Biblical Studies* (New York 1968), 50; Ross, "The Battle Over the Hebrew Vowel Points", 7: "The reason why God ordained the Scriptures to be written in this ambiguous manner [without points] is because it was His will that every man should be subject to the Judgment of the Church, and not interpret the Bible in his own way. For seeing that the reading of the Bible is so difficult, and so liable to various ambiguities, from the very nature of the thing, it is plain that it is not the will of God that every one should rashly and irreverently take upon himself to explain it; nor to suffer the common people to expound it at their pleasure; but that in those things, as in other matters respecting religion, it is His will that the people should depend upon the priests.";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의 자체가신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것으로 그는 한편 로마가톨릭 교회의 수위주장에 반대하였고, 다른 한편 열광주의자들의 직통계시를 거절했다. Van 'T Spijker, 210; cf. Maris, 13).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부카누스에 따르면 성경은 어떠한 오류도 없이 그 자체로부터 진실하다. 성경은 그 자체로부터 완전하며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내포한다.[74] 구약이나 신약 모두 그 자체로부터 우리 구원을 위해 판명하다. 부카누스에 있어서 신구약의 차이는 실체의 차이가 아니라 시간 혹은 분배의 방식 혹은 계시될 때 경륜의 방식에 따른 것이다. 그 차이는 충분성에 관련한 것은 아니라, 판명성에 관한 것이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덜 분명하고, 성경의 다른 부분은 더 명료하고 부요한 것의 차이다(obscurius en clarius & abundantius).[75] 그런 의미에서 부카누스에게 구약의 충분성은 신약의 첨가에 근거하지 않는다. 성경기록은 오직 모세오경만 있었던 때에도 그 자체로부터 이미 충분했다.[76] '구약성경은 단어들과 관련하여서(quoad verba) 그렇지 않을지라도 의미와 관련하여서는(quoad sensum) 완전하고 충분했다. 따라서 신약성경의 첨가를 통해 구약성경은 더 완전해 진 것이 아니라 더 판명해 진 것이다.'[77]

부카누스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기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약과 신약성경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한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성령을 통해 자신의 백성에서 나타내셨다.[78] 이때 하나님의 의지는 부카누스의 삼위일체적 원리 아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요 같은 의지며,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 보이신 삼위일체의 작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74)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V, ii: "Unde & illa sola αὐτόπιστος per se fide digna, nec Angelorum, nec hominum censurae additioni, diminutioni, mutationi subiecta, erroris expers: soli ei propter suam ipsius asseverationem credendum: ex ea sola dogmata confirm da, & dividicanda sunt, omnibus legenda: Sola perfecta: & complectens omnia quae ad salutem aeternam necessaria sunt."

75)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V, x: "Quomodo differunt Scripta Prophetica ab Apostolicis? Nihil, quo ad Doctrinam attinet: eadem enim fides & morum doctrina in iis traditur." 이것은 칼빈이 말한 구원교리(doctrina salutis)와 다르지 않다. 여기서 성경의 통일성이 관련된다(Van 'T Spijker, 211).

76)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V, xi: "quia quando tantum quinque libri Mosis fuerunt, sufficientes fuerunt."

77)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V, xi: "Erat ergo Vetus Testamentum intergrum & sufficiens quoad sensum, etsi non quoad ad verba: accessione igitur Novi, non perfectius, sed clarius factum est"; Cf. Zwingli, *De Certitudine et Claritate Verbi Dei*, Cap. III (Zurich : Christoph Froschauer, 1524).

78)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V, ii.

6. 성경해석: analogia fidei & sola, tota Scriptura

부카누스는 성경해석을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눈다: 주석과 적용. 적용이 성경 해석의 한 부분이다. 성경은 참되고 순수하게 주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주해는 교회를 위해 유용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바른 성경해석은 그 자체 문맥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우리가 성경해석에 있어서 본문의 앞선 것과 뒤의 것에 주의하면서,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비교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79] 성경이 성경과 비교되는 방식을 통해 부카누스는 성경해석에 있어서 선행자들, 즉 위클리프(Wycliffe), 루터, 츠빙글리, 부써 그리고 불링거의 발자취를 따른다.[80]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칙은 종교개혁시대에 성경주석 방법의 기본이다. 그러나 그 원칙은 단지 성경을 해석하는 기술에 불과한 것이었는가?

79)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V, xxii; cf. Wollebius, *Compendium Theologiae Christianae* (Amsterdam, 1655), 9: "XIX. Media verum Scripturae sensum investigandi sunt, Frequens oratio; linguarum cognitio; sontium inspectio; argumenti & scopi consideratio; verborum propriorum & figuratorum distinctio; causarum, circumstantiarum, antecedentium & consequentium notatio ac logicae analysis; obscuriorum cum illustrioribus, similium cum similibus, dissimilium cum dissimilibus comparatio; fidei denique anologia."

80) Buddensieg, John Wyclif's *De Veritate Sacrae Scripturae* (London: Pub. for the Wyclif Society by Trübner & Co., 1905), 196: "(...), videtur ex hoc esse necessarium, quod sepe una pars scriptura exponit aliam."; Luther, WA VII, 97: "hoc est, ut sit ipsa per sese certissima, facillima, apertissima, sui ipsius interpres omnium omnia probans, iudicans et illuminans, (...)". Cf. RGG (Aufl. 3), Bd. 4, 503; Bucer, *Handel mit Cunrat Treger* 1524. in *Christo Naturarum Unione Adversus D. Iacobi Andreae Assertionem* (Genevae, 1565), 62: "das wir schrifft durch schrifft u ß legen". Cf. Greschat, *Martin Bucer: A Reformer and his times* (Loisville 2004), 61-62; Bullinger, *Studiorum Ratio* (Zuerich, 1556), 108: "scripturam sui ipsius esse commentarium, modo cum diligentia ac iuditio eam legamus atque in ea indefesse exerceamur."; Cf. Y.K. Kim, *Compendium Theologiae Systematicae* III (서울: 개혁주의성경연구소, 2003), 13; Muller, Post-Ref. Vol. 2, 69.

문맥을 잘 살피고, 비유적인 표현들을 분석하며, 역사적이고 생물학적인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은 에라스무스(Erasmus)의 인문주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불링거는 성경 자리들의 비교를 통한 성경 해석 방법(modus tractandi scripturas per locorum collationem)을 거기에 첨부하였던 것이다.[81] 이러한 방법들은 성경을 주해하는 데 확실히 유용한다. 그럼에도 그러한 수사적이고 해석학적인 방법들은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으로부터 사람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수단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성경은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 어떤 종교적 소재 이상의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믿음의 유일한 규범이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그들은 성경 텍스트를 신학의 원천(fons)으로 사용하기보다 신학과 삶의 원리(principium)로 사용하는데 주의를 기울였다. 예를 들어 칼빈은 인문주의자들의 수사적, 역사적 분석 방법들을 차용하였지만 그가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찾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 혹은 성령의 뜻이었다.[82]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것으로부터 말과 생각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서 따라야 했던 믿음의 규범이었다.[83] 종교개혁자들에게 성경은 텍스트 그 이상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삶의 규범이자 원리였다. 부카누스 역시 칼빈이 성경에서 찾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자 했

81) Bullinger, *Studiorum*, 78ff; Kim, *Calvin und das Alte Testament* (서울, 1994), 21-25; 그러나 비교방식(collatio)은 김영규에 따르면 불링거의 고유한 해석학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방식을 이미 에라스무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Cf. Erasmus, *Novum Testamentum*, Praefationes: "(...) Sive quid explicandum, facilis erit locorum collatio. Quandoquidem haec non Origeni tantum sed et Augustino optima ratio est interpretandi divinas litteras, si locum obscurum ex aliorum locorum collatione reddamus illustram et mysticam scripturam mystica item scripture exponat." (김영규의 각주 37번에서 재인용); 또한 루터에게 있어서도 성경해석의 같은 방식(collatio)을 찾을 수 있다. Luther, *Loci Communes*, Theodosius Fabricius ed. (London, 1651), 71; cf. Rijssen, *Compendium Theologiae Didactico-Elencticae* (Amsterdam: Apud Georgium Gallet, 1695),14.

82) Cf. KIM, *Calvin und das A.T.*, 159-160; Huijgen, *Divine Accommodation* in John Calvin's Theology (Geo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 47-49, 126-132.

다.[84] 즉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의 성경해석을 통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진다 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대로(6.4.1), 하나님의 의지가 참이기 위해서 성령의 내적 증거는 필연적이다. 내적 증거가 없다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의지는 알려질 수 없다. 부카누스에게 구원지식의 도구적 원인은 믿음이다. 믿음으로부터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한다는 사실이 믿음보다 앞서지 않는다(non ante fidem).[85]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믿음의 규범인 자신의 말씀에 부합하도록 하여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성령은 자신의 말씀과 함께 삼위일체의 구원의지를 믿음의 선물로 우리에게 수여하신다. 그것으로 인해 말씀은 우리 생애에 빛과 규범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인 성경은 말씀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와도 밀접히 연관된다. 부카누스는 하나님의 의지와 성령의 내적 증거의 상호관련성을 말하므로 바른 성경해석이 성경의 참된 저자이신 하나님 자신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 자신만이 성경에 있는 자기의지의 참된 증인이시다.

83) Calvin, *CO*. I, 497= *CO*. II, 120: "(...) meminerimus hic, ut in tota religionis doctrina, tenendam esse unam modestiae et sobrietatis regulam, ne de rebus obscuris aliud vel loquamur, vel sentiamus, vel scire etiam appetamus, quam quod Dei verbo fuerit nobis traditum". *CO*. I = *CO*. II, 282: "Itaque sic animis et linguis comparatos esse nos decet, ut nihil de ipso Deo eiusque mysteriis aut cogitemus aut loquamur nisi reverenter et multa cum sobrietate; ut in aestimandis eius operibus nihil nisi erga ipsum honorificum sapiamus". *CO*. I, 480: "Equidem hic, si quando alias in reconditis scripturae mysteriis, sobrie multaque cum moderatione philosophandum; adhibita etiam multa cautione, ne aut cogitatio aut lingua ultra procedat, quam verbi Dei fines protenduntur". *CO*. I, 863: "Hic optimus sobrietatis terminus erit, si non modo in discendo praeeuntem emper sequamur Deum; sed ipso finem docendi faciente sapere velle desinamus."; Cf. Kim, *Calvin und das A.T.*, 15-17.

84)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V, ii; 이 입장은 아레티우스와 정확히 일치한다(Aretius, *SS. Theologiae Problemata, Sev Loci Commvnes, Et Miscellaneae Qvæstiones* (Geneve:Apud Ioannem le Preux, 1589), 142).

85)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V, xii.; 이러한 측면에서 부카누스의 성경론은 구원론과 밀접히 연관될 수 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구원지식에 끊임없이 연관하기 때문이다. 믿음과 성경의 권위 사이의 그와 같은 밀접한 관계는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Cf. Maris, *Geloof en Schriftgezag*, 11-12.

부카누스는 그렇게 하나님의 저자성을 성경의 형성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에서도 강조한다. 하나님이 스스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은 단지 우리의 지적 충족을 목적으로 삼으신 것은 아니다. 성경의 자기계시는 해석하적 방법의 적용을 통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의 기뻐하신 뜻을 배워 알게 하신다. 그렇게 하므로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살도록 요구하신다.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택자를 구원하기 위한 믿음의 규범으로 사용된다. 우리는 상기 열거된 해석학적 방법들을 개혁신앙의 깊은 경건의 차원과 믿음의 규범에 부합하게 적용해야 한다. 부카누스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조명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위해 필연적이다.[86] 이것을 토대로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석의적 원리는 단지 제일 규준으로서만 아니라, 오히려 유일한 규준으로서 믿음의 유비(analogia fidei)와 전체 성경(tota Scriptura)으로 고려되어야 한다.[87]

Ⅶ. 나가면서

지금까지 부카누스의 조직신학 구성의 개괄 및 신학 인신원리인 성경론을 살펴보았다. 부카누스는 자신의 조직신학을 두 원리들로부터 펼쳐 나아갔다. 이 원리들은 사실의 원리로서 한분 하나님과 삼위일체 그리고 신학 인식의 원리로서 성경으로 구분된다.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전통에 의하면 본질이나 속성처럼 하나님 자체로부터(a se) 하나님 자신에 관해 언급한 경우가 있고, 영원 전 세 위격들 간의 상호 관계들에 따라(secundum relativum) 위격들의 고유성이 언급되는 경우도 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관계하여(secundum creaturam)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역사하신다. 시간 세계내의 위격들의 모든 역사는 하나요 같은 삼위일체의 공유된 사역이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는 자기계시에 있어서도 주체가 되신다. 이런 전통 아래 부카누스의 조직신학에서 인식의 원리로써 성경계시는 신론적 특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즉 성경의 저자성이 기록성보다 강조되고, 성경의 형성 뿐만 아니라 해석에서도 참된 저자인신 하나님의 주체성이 부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뒤로 하고 글을 마무리 하면서, 21세기 한국 개혁신학의 순수성과 개혁교회의 회복을 기원하며 다음 몇 가지 사항에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신학함'에 있어서 18세기 이후 과학적 실증학문의 이름으로 성경의 참된 저자에 대해 물음으로 남겨두는 것은 신학의 본질을 벗어난 일이다. 그것은 신학의 오래된 원리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 부카누스를 비롯하여 16, 17세기 개혁신학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저자이자 수여자요 진리 자체였다. 진리는 인간의 발견이나 발굴 혹은 보편적 동의에 의존하지 않고, 계시의 저자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 보았다. 우리시대 개혁신학에서 추구하고 보존해야 할 원리적 과제는 새로운 무엇이 아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둘째, 신론적 계시론이 회복되기 위해서 신학은 믿는 자의 신학, 교회의 신학이 되어야 한다. 부카누스에게 있어서 신학의 인식원리는 성령의 내적 증거, 곧 믿음의 내적 원리로 인해 실효된다. 신학은 실증과학의 학문적 유희나 인간 보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지식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를 목적으로 삼는다. 20년을 목회하

86) Bucanus, *Institutiones*, Locus, XVII, viii.

87) Bucanus, *Institutiones*, Locus, IV, xxiii: "Quaenam eius Regula esse debet? Unica, nempe Analogia Fiedei, quae nihil aliud est quam constans & perpetua sententia Scripturae in apertis Scripturae locis exposita,& Symbolo Apostolico, Decalogo, & Orationi Dominicae, aliísque generalibus de quo liber Theologiae capite Scripturae dictis & axiomatibus consentanea."; cf. Trelcatius, *Scholastica et Methodica*, 12: "Tertium medium est Interpretatio sive (...); cuius Principium est Spiritus sanctus, Modus est veritas, Regula est Scriptura, usus est Charitas; Media vero, quae quidem Primaria sunt, sunt Perpetua Collatio Sacrae Scripturae cum Scriptura.'. 'Analogia Fidei, ut omnia exponantur secundum veritatem primorum dogmatum in Theologia. Quae vero Secundaria sunt; sunt Praxis Ecclesiae, Decreta Conciliorum saniorum, & Expositiones Patrum: Quibus omnibus eatenus datur locus, quatenus cum Scriptura & analogia fidei consentiunt.."

였던 부카누스에게 신학은 건전한 성경진리를 따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오늘날 한국 개혁신학에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전통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부를 향한 삼위일체의 모든 사역들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부카누스의 신학의 원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신학의 부분들(partes)로써 시간 세계의 모든 구원 경륜이 삼위일체의 공통된 사역임을 이해하는 데에도 역시 중요하다. 이것을 통해 신학 각론에서 삼위일체의 주권이 보장된다.

넷째, 성경이 신학의 원리가 아닌 대상이 되더라도, 성경 주해에 있어서 여러 해석학적 방법들은 성경의 어떤 '정보(information)'를 발굴하는데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석의의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것이다. 교회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한 정보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notitia)으로 세워지기 때문이다. 성경 본문을 통해 궁극으로 드러나고 선포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그의 뜻이다.

다섯째, 부카누스의『신학 강요』는 저술목적이나 원리, 내용적 구성에 있어서 칼빈의『기독교 강요』최종판(1559)을 닮아 있다. 부카누스는『신학 강요』서문에서 당대 주요 신학자들을 열거하면서, 칼빈의『기독교 강요』는 '황금의 책(sane aurea Calvini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으로 별칭한다. 출판을 권유한 베자와 신학강요를 편집한 굴라르티우스와 함께 부카누스도 제네바의 칼빈신학 영향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Notitiae Principium of William Bucanus(†1603)' Theology in Lausanne

Sung Jai Cho (ServinGod Church)

This article probes Guilielmus Bucanus (†1603)'s doctrine of Scripture as principium cognitionis, the cognitive principle of theology as it is laid down in his Institutiones Theologicae. In Bucanus' theology the knowledge of God founded on revelation and Scripture is related to the trinitarian structure in the tradition of Augustine.

In Augustine's theology, it can be shown that there are three structures: the existence and attributes of God, persons in their mutual relationship, and the history of the Trinity in its relation to creation. Among these, the first and the second structures correspond to the doctrine of God and the third entails self-revelation of God in accordance with his economy. Augustine understands the very existence of the Trinity and His historical economy in a synthetic manner. The works of the Trinity are not divided in themselves (*opera Trinitatis ad extra sunt indivisa*). The unitive works of the Trinity in the tradition of Augustine provides a necessary framework for the theology of Bucanus. Thus his principle and system of theology in general is a comprehensive totality indivisible

from the triune God Himself.

In Bucanus' principle of theology Scripture can never be separated from God its true author. From the formation of revelation of Scripture to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he principle is thoroughly theocentric. Not only dictata – inspiration is adopted in his understanding of biblical inspiration, also a distinction is introduced between the Holy Spirit as the effective author of Scripture and its human authors. The Holy Spirit receives a special attention as a true and final witness of Scripture. The trustworthiness of Scripture and the unit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ar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unitive economy of the truine God, the one and same author.

A downfall of the late 17th century Reformed theology and the rise of scientific study in the 18th century has left a strong impact on theology. One of the most serious damage was seen in the reality that God as the author of Scripture is separated from the Scripture itself and thus a question was raised regarding the divine origin of Scripture. According to the cognitive principle of Bucanus' theology this kind of scepticism cannot be substantiated with the essence and the purpose of theology itself. It is the task of Reformed theology in our times to rightly restore 'God' and the Scripture as His 'Word' in our practice of theology.

[참고문헌]

Aretius, B. *Problemata Theologica Continentia praecipuos Nostrae religionis locos*. Lausanne: Franciscus le Preux Illustriss. D. Bernesium Typographus, 1573 = *S.S. Theologiae Problemata Hoc est: Loci Communes Christianae Religionis, Methodice Explicati*. Geneve: Le Preux, 1589.

Bautz, F. Wilhelm & Bautz, Traugott, *Biographisch-Bibliographisches Kirchenlexikon* Bd.1. Hamm: Verlag Traugott Bautz, 1975.

Bavinck, H. *Gereformeerde Dogmatiek*. Kampen: Kok, 1998.

Belt, Henk. Van Den. *The Authority of Scripture in Reformed Theology*. Leiden: Brill, 2008.

Betz, H.D. & Browining, D.S. & (...).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Handwörterbuch für Theologie und Religionswissenschaft* (RGG, Aufl. 4). Tübingen:Mohr Siebeck Verlag, 1998-2007.

Blasche, S. & Wolters, G. & (...). *Enzyklopädie Philosophie und Wissenschaftstheorie*. Stuttgart: Metzler, 2004.

Brienen, T. in *De Onbekende Voetius*. Voordrachten wetenschappelijk symposium Utrecht 3 maart 1989, J. van Oort (red). Kampen : Kok, 1989.

Bucanus, G. *Institutiones Theologicae sev Locorum Communivm Christianae Religionis, ex Verbi Dei*. Bern: Iohanes & Isaias le Preux, 1605.

Bucanus, G. *Institutiones Theologicae sev Locorum Communivm Christianae Religionis, ex Verbi Dei*. Genevae: Typographia Iacobi Stoer, 1625.

Bucanus, G. *Institutions of Christian Religon*. in tr. Robert Hill. London: G. Snowdon & L. Snowdon, 1606.

Bucanus, G. *Body of Divinity, of Institutions of Christian Religon*, in Engl. Transl. Robert Hill. London: Pakeman, D. & Roper, A. & Tomlius R., 1659.

Bucer, M. "Handel mit Cunrat Treger" 1524. *Martini Buceri Opera Omnia: Deutsch Schriften*, vol. 2. Gütersloh: G. Mohn & Paris: Presses Univeritaires de France, 1962.

Buddensieg, R. *John Wyclif's De Veritate Sacrae Scripturae*. London: Wyclif society Trubner & co., 1905.

Calvinus, J. *Opera quae supersunt omnia*. Guilielmus Baum, Eduardus Cunitz, Eduardus Reuss ed. Brunsvigae: C.A. Schwetschke, 1863-1864.

Calvinus, J. "Olevianus' Institutionis Christianae Religionis Methodus & Dispositio: seu, Totius Operis Argumentum".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oanne Calvino Authore*. Genevae: Apud Iohannem le Preux, 1592.

Cartwright, T. *A Treatise of Christian Religion*. London: Felix Kingston for Man, 1611.

Cho, S. G. *Trinitarische Theologie bij Guilielmus Bucanus (†1603)*. Apeldoorn: Drukkerij Holland bv., 2013.

Coccejus, J. *Summa Doctrina de Foedere et Testamento Dei* 1648. Operum Johannis Coccei. Amsterdami: Johannis à Someren, 1673.

Degen, B. *Historisches Lexicon der Schweiz* Bd. 2. Basel: Schwabe, 2003.

Eugène, H. & Émile, H. *La France protestante* 9 tomes. Paris: Libraire Sandoz et Fisghbagher, 1846-1856.

Frère, É. *Manuel du bibliographe normand* tome 1. Rouen: A. Le Brument. Libraire de la Bibliothêque Publique, 1858.

Gaß, W. *Geschichte der protestantischen Dogmatik* I. Berlin: Georg Reimer, 1854.

Greschat, M. *Martin Bucer: A Reformer and His Time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4.

Gründer, K. & J. Ritter(hg.) & (...).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d. 11.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 sellschaft, 2001.

Heppe, H. *Die Dogmatik der evangelisch-reformierten Kirche*.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58.

Heppe, H. *Theodore Beza: Leben und ausgewählte Schriften*. Elberfeld: Friderichs Signatur, 1861.

Huijen, A. *Divine Accommodation in John Calvin's Theology*. Göttingen: Vandenhoek & ruprecht, 2011.

Itterzon, G.P. Van. *Franciscus Gomarus*. Groningen: Nijhof, 1979.

Kim, Yong Kyu. *Calvin und das alte Testament: Sola Scriptura und der Trinitarische Gott als alleiniger Autor des Alten Testa menten*. 서울: 개혁주의성경연구소, 1994.

Kim, Yong Kyu. *Compendium Theologiae Systematicae* III. 서울: 개혁주의성경연구소, 2003.

Luther, M. *Loci Communes, ed. Theodosius Fabricius*. Londoni: R.H. & W.E. Impensis Gulielmi Wells; ad insignia Principis, in vico parva Britania; ..., 1651.

Moon, Byung Ho. *Christ the Mediator of the Law*. Bletchley: Paternoster, 2006.

Muller, R.A. *The Unaccommodated Calvin. Studies in the Foundation of a Theological Tra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Nauta, D. *Samuel Maresius*. Amsterdam: H.J. Paris, 1935.

Neuser, W. *Calvinus Verständnis der Heiligen Schrift*. Grand Rapids: Eerdmans, 1994.

Pache, R. *Inspiratie en gezag van de bijbel*. Amsterdam: Buijten en Schipperheijn, 1977.

Parker, J. *Calvin's Old Testament Commentaries*.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86.

Peels, H.G.L. "Het Woord is leven: over de Heilige Schrift". *Gegrond geloof: Kernpunten uit de geloofsleer: In bijbels, historisch en belijdend perspectief*. red. G. van den Brink. M.van Campen & J. van der Graaf, Zoetermeer 1996.

Rijsen, Leonard van. Compendium *Theologiae Didactico-Elencticae*. Amsterdami: Georgium Gallet, 1695.

Ridderbos, J. *Gereformeerde schriftbeschouwing en organische opvatting*. Kampen : J. H. Kok, 1926.

Ritschl, O. *Dogmengeschichte des Protestantismus*. Leipzig: Hinrichs'sche Buchhandlung, 1908.

Ritschl, O. *Die reformierte Theologie des 16. & 17. Jahrhunderts in ihrer Entstehung & Entwicklun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26.

Ritter, A.M. & Andresen, C. & Benrath, G.A. Handbuch der Dogmen-und Theologiegeschichte, Bd. 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9.

Ross, T.D. "The Battle Over the Hebrew Vowel Points, Examined Particularly As Waged in England". http://sites.google.com/site/thross7

Oursel, Noémi Noire. *Nouvelle biographie normande*, 4 tomes. Paris: Picard, 1886-1912.

Krause, G. & Müller, G.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d. 22, 34, 36. Berlin: De Gruyter, 1977-2004.

Schrenk, G. *Gottesreich und Bund im Älteren Protestantismus*. (Darmstadt: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67.

Spijker, W., van't. *Calvin: Biographie und Theologi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

Strohm, "Methodology in Discussion Of "Calvin and Calvinism"". *Calvinus Praeceptor Ecclesiae*. Selderhuis, H. ed., Genève: Droz, 2004.

Trelcatius, L, sr. *Scholastica et Methodica Locorum Communium S. Theologiae Institutio*. Leiden: Lvgdvni Batavorvm. Ex Typogr. Christoph. Guyotij, Imp. Jo. Orlers, 1604.

Veenhof, J. *Revelatie en Inspiratie*.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1968.

Voetius, G. *Selectarum Disputationum Theologicarum*. Ultrajecti: Joannem à Waesberge, 1648.

Vuilleumier, H. *Histoire de l'Église Réformée du Pays de Vaud sous le régime bernois*, I, II. Lausanne: éd la Concorde, 1927.